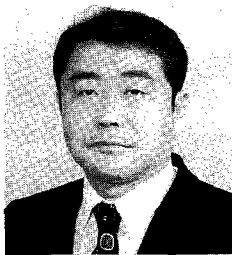


계열화 사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때...



김 중 철
갈티농장 대표
(서산육계분회장)

오 늘은 초복날이다. 일년중 가장 닭고기 소비가 많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장마탕으로 날씨는 잔뜩 찌푸려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무덥기만 한 날이다. 오후에 시장을 한바퀴 돌아보는데 휴일이다 초복날이 겹쳐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소비가 잘되는 것으로 보였다.

IMF체제하에서 다시금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경기가 위축되다보니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는 상황에서 최대성수기인 초복날의 소비감소가 얼마나 될까 걱정이 많았으나 의외로 소비가 잘되는 것 같아 하늘만 바라보며 조마조마 마음 졸였던 불안한 생각을 잠시나마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육계업이 생존해 갈 수 있을까에 마음이 쓰였다.

너무나 요즘은 살얼음판 같은 육계업이라 신경이 더욱 더 쓰여지는 것 같다. 지금까지 닭을 생산하고 농장경영을 해가면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이젠 우리 육계업의 뒤를 돌아 보고 나는 물론이고 주변을 철저히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1978년 도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뼈를 묻겠다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겁없이 막상 시골로 내려왔지만 무엇을 해야할지 망설이고 있을때 어느 선배님이 양계를 해보라 권유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우스를 짓고 육계 3,000수를 입추한 것이 육계업과의 첫인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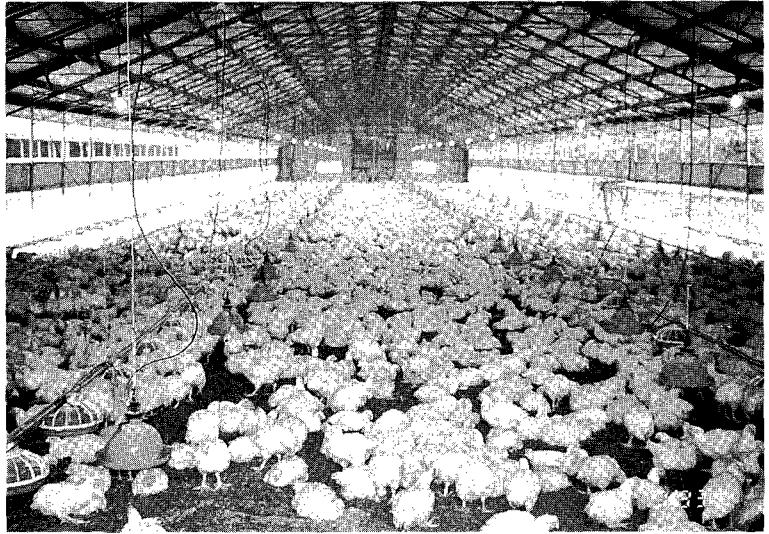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들에 나가 풀을 뜯어다 주고 시장에 가서 조개껍질 주어다 주고 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도 처음하는 사업인지라 마음줄이고 여러 경험을 가진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키워내 그당시에 90여만원이란 많은 돈을 손에 쥐었다.

1.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그렇게 경험도 쌓으면서 규모를 조금씩 늘려

가던중 1985년 영농후계자(육계부문)로 책정되어 농촌진흥청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 중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 정선부 당시 축산시험장 가금과장님께서 교육중 하시는 말씀이 '서울역 앞 남대문에 대한양계협회가 있는데 매월 25일 날 육계분과 회의가 있으니 찾아가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뒤 25일이 되어 양계협회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전국에서 약 4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과 앞으로의 향후 전망도 하는 것을 보고 아! 지금까지 5년동안 닭을 키우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에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지금까지 십수년동안 4번 정도 빠지고 거의 회의때마다 참석하여 종계입식수수, 지역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 앞으로의 전망 등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국의 회원들도 많이 알게 되어 어려운 일이 있을때 서로 협조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 뒤 생산자들의 지역적 조직과 단합의 필요성을 느껴 지역에 서산분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상호협력하에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회원간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면서 닭고기도 소비가 잘될 것이라며 병아리 입식열기와 사육장 시설 증대로 인하여 엄청난 물량이 키워졌

지만 결과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1kg당 400원에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양계협회에서 육계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병아리 입식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 부화협의체와 만나 생산조절을 할 것을 논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20%의 육계업자가 닭까지도 놔두고 야밤에 도망가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 많은 육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뒤 육계업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육계업도 서서히 흑자국면으로 들어섰다.

2. 육계업자의 책임

'80년 말이 되면서 수직계열화니 수평계열화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육계업은 계열화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계열화도 좋고
개별경영도 좋지만
그동안 육계업의 발전은
무수한 생산자의 희생과
도산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결국에는 계열화가 한국육계업에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요즘은 육계하면 계열화란 단어가 연상될 정도로 대명사가 되어 버렸고 이제는 육계생산의 거의 반정도가 계약사육에 의해 길러지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계열화가 진정 생산자를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계열화는, 생산자는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며 소비자는 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고 또한 계열주체는 적정한 이윤을 볼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육계업이 함께 부실화가 되어 온 것을 모두 계열화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많은 무리가 있지만,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할 계열주체가 물량을 시중에 대량 방출하면서 시장을 흐리게 만들고 생산시설을 무리하게 증축하게 만들어 이제는 농가의 사육비는 60~90일 짜리 어음으로 결제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생산자)가 추구하는 육계업의 발전은

계열화도 좋고 개별경영도 좋지만 그동안 육계업의 발전은 무수한 생산자의 희생과 도산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한때 계열화를 소리높여 주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의 시련과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육계업자들은 계열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이 방식을 보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정부지원은 어디로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엄청난 자금을 축산농가들에게 용자를 해줬다.

물론, IMF영향도 있지만 쪼트 한 마리가 강아지 값과 같고 시설을 현대화한 농장은 이자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던 각종 정부자금은 결국에는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새로운 생산자나 또는 시설증대에 집중되어 예견되었던 '생산과잉'이라는 미로속에서 왔던 길을 다시가고 지나갔던 길도 망각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제살만 깎아 서로 나누어 먹는 형세가 되어 버렸다.

국가지원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차입경영을 이겨내고 소화할 만한 힘을 갖추기에는 육계업은 생산과잉으로 실속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육계업의 한뿌리

올해들어 부화업계의 자구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곳 서산지역에도 5개의 부화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3개 부화장은 부도가 나고 2개 업체만 남았지만 그나마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주인만 바뀐다면야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지만 이로인한 육계농가의 시련과 지금까지 이루어온 기술을 다시 쌓아가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화업계의 부실은 곧 바로 육계농장으로 이어지므로 부화업계가 건설해 질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결국 부화업계의 공멸로 이어지고 결국은 외국한테 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부화와 육계는 한 뿌리임을 다시한번 인식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 육계농가는 육계업이 생업이요, 전업으로서 생계수단으로 여기며 사명을 다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또한 육계업이 사업으로서 돈도 벌고 사업성을 만족시켜줘야 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음과 청춘을 바친 이업(業)이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지금의 어려움이 훗날의 자랑스러운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한번 용기와 의지를 다져나갈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한다. **양계**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한다.
-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 전 일정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먹여야 한다.